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종교적 복장 또는 수염에 기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Cuomo: "뉴욕 주민들은 우리의 다양성을 찬미하며 직장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의 자유로운 종교적 표현을 옹호합니다. 본 법안은 종교적 복장 또는 수염에 기반한 고용 차별의 관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뉴욕이 모든 종류의 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종교적 의복, 복장 또는 수염에 기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S.04037/A.4204)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안으로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이 개정되어, 고용주는 개인의 종교 교리에 따른 복장이나 수염을 이유로 고용, 성취, 승진을 거부할 수 없으며 기타 차별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우리의 다양성을 찬미하며 직장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의 자유로운 종교적 표현을 옹호합니다. 본 법안은 종교적 복장 또는 수염에 기반한 고용 차별의 관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뉴욕이 모든 종류의 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본 법안은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보호를 명확히 하고, 고용주가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지원자 또는 고용인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며, 고용인의 종교적 관례를 적절히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새 법안은 종교적 포용과 평등에 대한 주지사의 오랜 헌신을 재확인합니다.

John C. Liu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은 종교적 복장이나 외모를 기반으로 한 고용주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요즘 시대에, 뉴욕은 종교적 표현을 보호하고 편견과 편협성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역사적인 이 법안에 서명하여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David I. Wepr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종교적 의복 법안은 뉴욕 주민들이 직장 내 종교로 인한 모든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편견과 혐오의 사례가 증가하는 요즘, 서로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떤 뉴욕 주민도 신앙과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직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 중대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내며,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신 John C. Liu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